

## 부가통신사업협의회 발족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15대 대선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산·학·연·관 등 각계의 의견교환 및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여 국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PC통신 및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들의 자율경쟁을 통해 PC통신이나 인터넷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민간의 활력과 창의성의 유입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의 현안 과제를 적극 발굴·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부가통신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3. 31일 첫 모임을 갖고 『부가통신사업협의회』를 발족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김 춘 석 사업관리본부 사업지원팀장

### 구성방침

부가통신사업의 다양성과 급속한 기술발전 및 민간 업계의 활발한 참여 유도등을 고려하여 기존 정보통신부내의 PC통신협의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산하 부가통신사업위원회 및 인터넷/PC통신사업위원회를 “부가통신사업협의회”로 통합·개편하는 한편, 지방채신청에서 운영하는 지역 부가통신사업협의회의 활동과 연계하여 지역 협의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협의회내에 현안사항별로 실무전담팀을 구성·운영토록 한다.

### 구 성

협의회 위원장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신범식부회장이 지명되었으며, 위원들은 별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부 부가통신과 차양신과장과 한국통신, 데이콤, 하나로통신, LG정보통신, 삼성SDS 등 산업계 12명, 연세대 전자공학과 홍대식교수 등 학계 2명, 한국전산원 이석한단장 등 연구계 2명과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IP협회 등 유관기관 3명 등 산·학·연·정부의 임원급 이상 21명으로 구성되었다.

실무전담반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활동방향과 주요 의제별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무전담팀의 팀장은 실무전담팀원중에서 호선토록 하며, 전담

팀원은 산·학·연·정부의 팀(부)장급 이상 15명 내외에서 구성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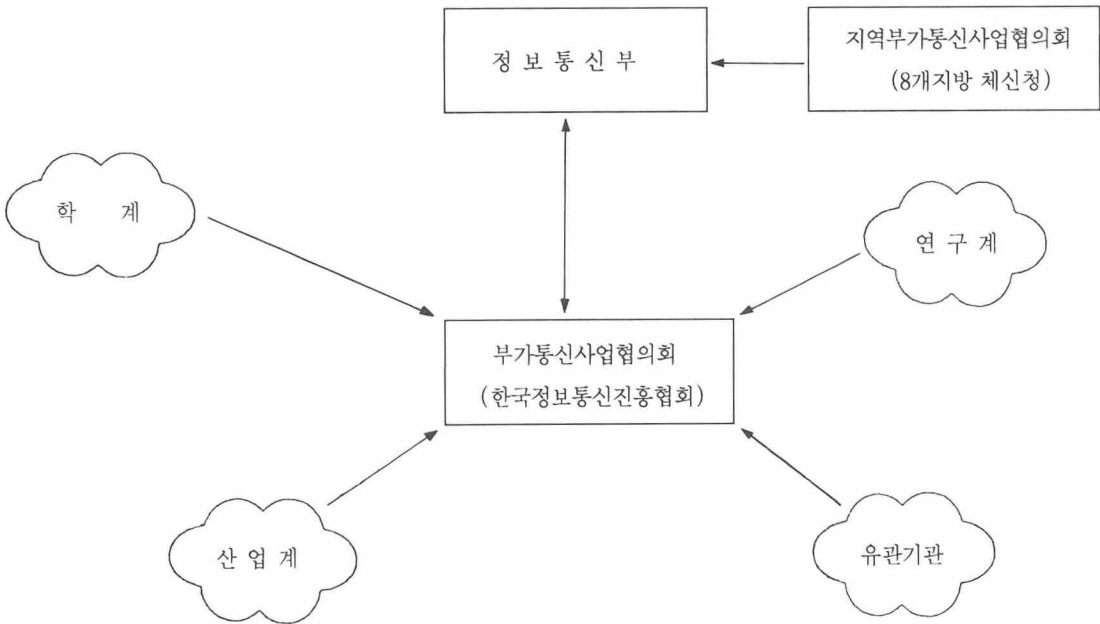
## 운 영

협의회는 격월간 1회 이상, 실무전담팀은 매월 1회 이상씩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회의진행은 문제점 발굴과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간담회 또는 자유토론행

식으로 진행토록 한다.

다만,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협회에서는 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회의의제를 상정한다. 또한, 협의회는 대정부 정책 건의등을 위해 실무전담팀으로 하여금 심층 조사나 연구 및 토의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 추진체계



## 주요임무

협의회는 부가통신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가통신사업의 세부적인 육성·지원방안을 도출하며, 실무전담반의 활동결과와 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실무전담팀의 주요 활동분야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PC통신·인터넷 분야로써는

PC통신 접속(소통)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PC통신의 접속과정을 분석하여 품질 저하의 원인을 모색하며, PC통신 호스트에 접근하기 위한 첨단 접속경로에 대한 연구 및 개발 등으로 한다.

새로운 PC통신의 요금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내·외의 PC통신 요금구조와 운용사례를 비교·분석하고, PC통신의 활성화를 위한 통신요금의 새로운 파라미터를 개발한다.

PC통신망의 고도화 및 다원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내 현황과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현재의 데이터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경제성 문제를 검토하며, 초고속국가망과 망사업자의 통신망 고도화 추진현황과 계획을 검토하고, PC통신망 구성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과 바람직한 통신망의 구성방향 등을 제시한다.

## 둘째, 국내부가통신 환경분야로써는

국내 부가통신사업의 개념 정립, 활용사례의 수집, 국내 부가통신역무의 산업분류체계 재조정, 부가통신사업의 발전과정과 향후 시장전망을 분석,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업환경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정보통신망의 고도화 및 확충 방안 마련, 사업자간 공정경쟁환경조성 및 법·제도의 정비 검토, 멀티미디어 DB의 개발·보급과 IP산업의 육성·지원 방안 강구, 벤처기업의 육성 및 이에 따른 고용창출 방안을 강구한다.

아울러,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기타 이용약관의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하는 등 이용자 보호대책을 강구한다.

## 국제부가통신환경분야로써는

외국의 부가통신관련 용어의 해석과 국내 용어와의 비교·분석, 제 외국의 국제 부가통신역무의 개방정도 및 규제 현황, 국제 부가통신서비스 환경의 변천과정 및 향후 방향을 가름하기 위한 국제 부가통신사업의 성장·시장 규모와 각국의 부가통신사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등을 조사하는 한편, WTO, ITU,

APEC등 국제 협력기구의 부가통신관련 정책방향을 가름하기 위한 APEC지침의 내용설명과 설문조사의 용도·효력 등을 조사하며, 부가통신역무의 개방압력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업체의 국제 부가통신역무의 현황파악 및 해외진출 방안과 국내에 진출한 외국 부가통신사업자의 제공역무와 사업전략 등을 검토한다.

## 협의회 제1차 회의내용(요약)

지난 3.31일 우리협회에서는 협의회 위원 19명을 모시고 상견례를 겸해 협의회를 정식 발족한데 이어 자유토론식으로 협의회 운영과 주요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이때 제기된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동 협의회는 타 협회나 유사 위원회와 무관하게 정부에서 대표성을 인정하며, 연말까지 부가통신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이를 정부 공식안으로 채택하여 강력하게 지원 및 추진할 계획이다.

과거부터 부가통신사업위원회나 협의회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간 상충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으므로 먼저 700번 서비스, PC통신, 별정통신 등 다양하고 복잡한 부가통신사업의 업무영역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따라 사안별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협의회 운영에 있어 정부 참여가 매우 중요하므로 정부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협의회 운영에 있어 간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간사는 그간 다른 협회나 보고서 등에서 논의된 이슈 및 대안 등을 수집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PC통신분야는 물론 인터넷 분야도 총 망라하여야 한다.

연말까지 정책과제를 마련하여 '99년 정부의 주요 업무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급한 사안의 경우 민간업계의 사활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014XY공동망 구축 등 시급한 사안은 단기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

는 등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기 또는 중·장기적인 정책과제로 구분하여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제기된 주요현안을 보면 주로 부가통신사업 분야인데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방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와 다툼의 장이 된다면 곤란하므로 부가통신사업자의 건의사항이 있으면 협의회에서 서로간의 입장을 도출하고 합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상위주의 대책보다는 새로운 안을 제시하면, 현재 너무 작은 국내시장 속에서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천만 ID 보급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여 시장을 키우는 일이 급선무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같은 사업목표를 정하면 단일목표를 위해 망, 접속, 요금 등 할 일을 손쉽게 도출할 수 있다.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면 위원에게 회의개최 및 회의결과 등 공지사항을 통보하고, 각계의 의견수렴 등을 위해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협의회 홈페이지를 만들고, 상호간의 E-mail주소를 교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가통신 활성화 방안을 오는 7월까지 제시하려면 중요한 현황사항을 발췌하여 사업자간 협의를 거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현안문제를 실무팀에게 논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하고 협의회는 상정된 안건을 합의토록 하되, 합의 곤란한 부분은 정보통신부에서 정책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1. 부가통신사업의 개념 재정립 및 사업범위 정의 필요
2. 인터넷 분야도 독립된 분야로 논의 필요

3. 천만 ID 보급사업 추진
4. 실속있는 협의회가 되도록 현안문제를 주로 다루고, 정부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
5. 국내 부가통신사업 시장을 키우기 위해 선진국 사례 등을 연구 필요
6. 주요의제를 현안과제인 단기과제와 정책과제인 장기과제로 구분 추진
7. 협의회내 의견교환 및 정보공유 등을 위해 홈페이지에 게시판 마련 및 E-mail 주소 교환
8. 사업자 장비의 국내개발과 국내 호환성시험 및 인증 방안 강구
9. 기간통신사업자와 관련된 현안문제를 실무전담팀에서 검토하고 협의회에서 합동 논의하여 대안마련 필요
10. 부가통신사업은 상호 보완적이므로 이해가 상충되더라도 상호 존중하고 수용하는 자세 필요

## 회의결과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위원들의 제안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5월중순경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협의회 활동방향과 의제를 결정하고, 실무전담팀을 구성하여 과제를 부여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 향후 추진계획

'98. 4. 20(월)부터 협의회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 개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7월말까지 단기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부가통신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정보통신부에 건의하고 이와 병행하여 연말까지는 중·장기적인 정책과제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부가통신사업협의회 위원 명단

(98. 3. 31일 현재)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상근 부회장	신 범 식	<위원장>
정보통신부	부가통신과장	차 양 신	<정 부>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데이콤 한국전력 LG정보통신 삼성SDS 현대정보기술 나우콤 아이네트 두루넷 한국정보통신 GNG텔레콤	데이터통신팀장 /국장 전송망계획실장 PC통신사업본부장 정보통신처 사업총괄기술역 정보통신시스템 연구단장 정보통신본부장 /전무 정보통신센타 통신운영 /팀장 /이사 사업본부 /이사 기술운영실장 전문이사 상무이사 영업본부장 /상무이사	한 동 훈 주 홍 열 문 상 환 신 창 우 박 성 현 김 종 환 황 성 광 이 상 돈 이 동 수 박 현 제 문 형 근 하 태 호	<산업계> 12명
연세대 이화여대	전자공학과 교수 국제대학원 교수	홍 대 식 최 병 일	<학 계> 2명
한국전산원 KISDI	초고속사업단장 정보사회연구실장	이 석 한 손 상 영	<연구계> 2명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IP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운영팀장 부회장 사업관리본부장	윤 세 민 조 기 원 최 성 규	<유관기관> <협 회> <간 사>
총 21명 : 위원장 1명 /위원 19명(정부 1, 산업 12, 학계 2, 연구 2, 단체 2) /간사 1명			